

[ 4·9 총선 ]



18대 국회의원을 뽑는 4·9총선을 사흘 앞둔 6일, 광주 광산구 하남 시영아파트 입구 우편함에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이 빼곡히 꽂혀 있다. 투표안내문을 들여다보는 주민들의 모습이 선거가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민주 “막판 뒤집기” 논스톱 철야 유세전

## 100시간 총력 유세 돌입

통합민주당은 4·9 총선을 사흘 남긴 5일 자정부터 선거운동 마감 시한인 8일 자정까지 사흘간 논스톱으로 철야 유세전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100시간 총력유세'의 일환으로 남은 기간 선대위 지도부와 후보를 낸 전국 197곳의 모든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방침은 손학규 대표가 전날 선대위 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것으로, 손 대표도 새벽 시장과 상가 등을 돌며 철야 유세전의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손 대표는 회의에서 "100시간 총력 유세의 취지를 살려 우리의 절박함을 국민에게 알려드리면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며 "남은 기간 끝없이 뛰도록 하자"고 철야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옆 자리에 있던 강금실 공동선대위원장에게 '강 위원

장이 선두에 서서 철야 지원유세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고 강 위원장은 흔쾌히 수락했다는 후문이다.

강 위원장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도 선거일 마지막 3일간 72시간 마라톤 유세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강 위원장은 전날 총력권 순회 유세 후 상경하자마자 밤 11시 신촌역, 새벽 1시 동대문운동장 인근 의류타운 앞, 새벽 2시30분 금천구 가스충전소 앞 등에 이어 새벽 4시 손 대표의 지역구인 종로구 청진동 해장국 골목에 누비는 등 밤샘 유세에 나선 뒤 오전 9시부터 곧바로 수도권 12곳 순회했다.

최대 격전지인 동작역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5일 오전 '8888 유세' 돌입을 선언, 막판 대추격의 의지를 불태웠다. 총선 D-1까지 남은 4일간의 총 96시간 가운데 통틀어 8시간만 눈을 붙이고 나머지 88시간 동안 1시간에 1번씩, 총 88회의 유세 릴레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나라 과반 얻어야 변화도 개혁도 가능”

## 강재섭 대표 지지 호소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6일 "18대 총선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세력이나, 정책과 좌절로 접철된 잃어버린 10년의 기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나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얻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역동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면서 "잃어버린 10년의 적폐를 깨끗이 씻어내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또 "지난 10년간 나라를 결판낸 국정과탄 세력에게 또다시 휘둘러서는 미래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면서 "국민이 도와줘야 한다. 한나라당에 일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지 호소했다. 그는 아울러 "과반 의석을 쥔데

도 제대로 못한다면 어떠한 국민의 심판도 받게 받겠다"며 "절대 오만하지 않겠다. 민생을 살피고 챙기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선자들을 불러 민생과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이 실종됐다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야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하고, 총선 공약과 당의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 밖에 그는 한반도대운하 문제와 관련,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밀어줬으니 대운하를 밀어준 것이라고 막 밀어붙이면 되겠느냐. 이번에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더라도 막 밀어붙이면 안 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제대로 하기 위해 (대운하 문제) 공약에서 뺐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를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100년 대계를 정치쟁점화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투표율 높이기 초비상

## 광주·전남 등 사상 최저 50% 초반 예상 선관위, 투표 참여 독려 전방위 총력전

광주·전남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4·9 총선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심리가 무관심을 넘어 냉소 수준에 육박해 있는데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선거구도가 다소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역대 총선 사상 최저 투표율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을 6일 앞둔 지난 3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적극적 투표 의향률은 63.4%로,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77.2%)보다

13.8%포인트 낮아졌다. 선관위는 17대 총선 전 조사에서 적극적 투표 의향률은 77.2%였고 실제 투표율은 60.6%였고 실제 투표율이 적극적 투표 의향률 응답률과 비슷하게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총선 투표율은 50%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때 57.2%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전방위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총동원, 유권자들이 있는 곳이면 찾아가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선관위의 경우 일반 주민을 포함한 360여명의 '투표참여 구전 홍보단'을 꾸려 요식업소, 이·미용업소, 경로당, 공사현장 등을 찾아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 외에 투표 참여 홍보 비행선 띄우기, 노선 버스 운행 횟수가 하루 수차례에 불과한 시내 10개 동에 선거인 수송버스 보내기, 노인·장애인 투표도우미차량 운행 계획 등도 내놓았다.

전남도 선관위는 지역민들이 몰리는 영암왕인문화축제장에서 선거 홍보대사인 원더걸스의 실물 크기 사진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중앙선관위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가입자 1천700만명에게 투표참여 호소 이메일을 발송하고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50인 이상 기업체에 투표 참여 홍보 호소문을 보내는 한편 선거일을 하루 앞둔 8일 휴대전화 가입자 2천700만명에게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발송기로 했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총선 막바지에 돌출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을 놓고 야권이 6일 사활을 건 듯한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측근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 뉴타운을 방문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해 그야말로 전방위적 포화를 퍼붓고 있다. 그렇잖아도 청와대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직·간접적인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며 공세의 수위를 키워가던 야권에서는 농칠 수 없는 '호재'를 잡았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우선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관

## 李대통령 은평 뉴타운 방문 野 “선거 개입” 총공세

권선거 논란을 정점화하며 포격의 선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은평 방문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상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관위에 조사의뢰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차영 대변인은 "서슬이 퍼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생각못한 일

이라고 주장하고 "관권선거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이명박 선거'라고 공격했다. 창조한국당은 아예 세종로 정부 청사 앞으로 몰려가 이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유선진당도 가세했다. 박원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은

평 방문은 이재오씨를 측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의 명백한 선거중립 의무 위반"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중립의 의무를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할 대통령이 불법 관권선거를 술선수법했다"고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이란 선거운동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든 등 선거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사례는 이와 같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www.kimyoung.co.kr. 상원대학교 편입 전문 센터 김영 대학편입학원. 02-228-8000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 25,500부터 (1인 기준) (세금 별도). 02-228-800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개강 매월 초 합격. 02-361-8111. 새 초 행정고시학원. 02-228-8111

공인중개사 오전반 야간반. = 합격률 전국 1위 =. 수강료 50% 환급과정. 전담고시학원. 236-2467~8